

2010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이흥우*

1. 머리말
2. 영역별 연구 성과 개관
 - 2.1. 구비문학 일반론
 - 2.2. 설화
 - 2.3. 민요
 - 2.4. 무가
 - 2.5. 판소리
 - 2.6. 민속극
 - 2.7. 속담·수수께끼
3.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2010년에 발표된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점검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¹⁾ 한 해 동안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실로 많은 연구 업적들이 양산되었는데 그 모든 업적들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의 의의를 부여

*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1) 2010년도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단행본과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통해,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을 통해 목록을 확인하고 열람하였다. 더불어 한국구비문학회 회원명단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의 연구업적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연구 성과들을 추가로 검색했다. 기초적인 연구 성과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준섭(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동학의 도움을 받았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 동향들을 가늠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필자는 이 글의 목적이자 집필의 방점을 가급적이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누락시키지 않고 점검하면서 어렵듯이나마 눈에 보이는 일정한 경향들을 제시하는 데 두었다. 혹, 특정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연구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필자가 과묵한 탓임을 밝혀 둔다.

본문에서는 기왕의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발표의 관행에 따라 구비문학의 하위 갈래인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수수께끼로 영역을 나누어서 연구 동향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구비문학 일반론에 대한 연구 동향 점검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본론의 제일 처음에 배치했다.

본격적인 영역별 연구 성과 개관에 앞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함에 있어 필자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정독을 하였으나 일부 연구들에 대해서는 목차와 초록만 확인한 것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아울러 필자의 주 전공이 설화인 만큼 설화 외에 여타 영역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음을 또한 밝히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2. 영역별 연구 성과 개관

2.1. 구비문학 일반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일반론은 해당 분야 연구의 결정체이자 후학들이 학문의 길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와 같다. 그러나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1960년대에 구비문학 연구 1세대들이 집필한 『구비문학개설』이 세상에 빛을 본 후 40여년 만에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가 출간되었을 정도로 일반론에 기초한 개론서 출간에 인색했다. 간혹 연구자별로 개론서를 내놓기는 했지만 개인의 연구 성과들을 한 데 모아 놓은 수준에서 나

아가지 못한 게 사실이다.

2010년에 간행된 단행본들을 살펴보면 구비문학 일반론이라 할 수 있는 개론서는 딱히 눈에 띄지 않았다. 단지 민속학이나 인류학 연구서²⁾의 한 장(章)에서 구비문학의 하위 갈래 중 일부가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근래에 관심을 가지고 구비문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현대의 구비문학이나 해외 동포들의 구비문학, 북한의 구비문학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구비문학 개론서의 출판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구비문학 현장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다수의 논저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비문학의 전승과 지역성』³⁾은 2008년에 시작된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의 1차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원들의 논문을 묶어서 간행한 것인데, 구비문학의 전승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동일한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최원오⁴⁾는 1차년도 현장조사 분야의 성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⁵⁾은 현장조사를 꾸준히 해 온 관련 전공자 19명이 각 분야의 조사방법을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제시한 책으로, 구비문학 연구자들에게도 현장조사 시에 참고할 만한 연구서이다.

그 밖에 구비문학 일반론과 관련된 개별 논문으로는 호랑이 설화를 일례로 들어 한국 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시론삼아 제시한 최원오의 연구⁶⁾와 전승자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라는 차원에서 안동지역의 공민왕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의 전승양상을 검토한 조정현의 연구⁷⁾ 등이 있었다.

2) 표인주,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이하 간행년도 생략); 경인민속학회, 『서울민속의 현재와 미래』, 민속원; 임재해, 『안동문화의 전통과 창조력』, 민속원; 임재해 외, 『마을민속 연구의 새 지평』, 민속원; 임재해, 『안동문화의 전통과 창조력』, 민속원; 지춘상, 『동아시아 민속학』, 민속원; 강성복 외,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전경수, 『탐라·제주 문화인류학』, 민속원

3) 이영식, 『구비문학의 전승과 지역성』, 민속원

4) 최원오,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1차년도 현장조사 분야의 성과와 전망」, 『민속연구』 20.

5) 임재해 외,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이 저서의 별책으로 간행된 ‘임재해 외, 『민속조사 주머니책-현장에서 요긴한 오만가지 질문』, 민속원’은 민속을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6) 최원오, 「한국 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2. 설화⁸⁾

예년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서 그러했듯이 2010년에도 설화 분야의 연구 성과는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와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 압도적이었다. 석·박사 학위논문도 상당수 제출되었고 다양한 연구방법과 시각에서 설화를 연구한 개별 논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 연구들의 연구 패턴은 기존의 연구와 대동소이했다. 즉, 특정한 설화 유형이나 모티프를 중심으로 각편(各篇)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들⁹⁾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구비설화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이라면 문헌 소재 설화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도 확인 되었다. 『삼국유사』¹⁰⁾나 조선 시대 소화집¹¹⁾, 야담집에 수록된 설화들을 기본 자료로 삼은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중에 야담집과 관련된 연구는 야담 자체에 대한 연구¹²⁾와 야담집에 실린 설화를 대상으로 하나의 유형을 설정한 후 그 의

7) 조정현, 「안동지역 공민왕 관련 민속의 전승양상과 주민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8) 무속신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2장 3절의 무가 영역을 검토할 때 다루기로 한다.

9)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혜림, 「피쟁이 하인 설화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민경, 「금기설화의 연구 : <작계전·장자못·구렁덩덩 신선비> 설화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영,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養馬모티프의 變遷과 文學的 意味」, 『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서은경, 「南怡 說話의 傳承樣相과 堂神化 過程」, 『어문연구』 66, 어문연구학회; 허정주, 「정평구 설화의 세계와 문화적 의미」,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박상란, 「비극적 태몽담과 죄의식의 문제 -구전설화 <태몽>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박재인, 「설화 <죽은 처녀 곱탈하고 복 받은 머슴> 속 시간(屢姦)과 발복(發福)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박현숙, 「시어머니 길들인 머느리」 설화에 반영된 현실과 극복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김경섭, 「도깨비 설화에 나타난 ‘몸’의 의미 -주체와 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0) 전주경,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초월적 조력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영, 「『三國遺事』 所載 風俗 기원담의 인식 지향 비교」, 『어문논집』 62, 민족어문학회; 이강엽, 「『삼국유사』 「興法」·「塔像」篇의 脫神話化 전략」,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11) 강다현, 「태평한화골계전」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 연구 : -인물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신이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33-3(통권 120),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욱, 「야담의 전개와 경화세족」,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미를 밝힌 연구들¹³⁾로 대별된다. 그리고 문헌에 기록된 설화를 바탕으로 다른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인물성격을 규명하는 연구¹⁴⁾도 있었으며, 20세기에 간행된 『월간야담』에서 전대의 야담을 개작한 여성관련담 25편을 대상으로 개작 양상을 살펴 본 연구¹⁵⁾도 있었다. 구비설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문헌설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장르간, 시대간 넘나들이 활발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설화 연구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자료집의 경우 전년에는 다양한 기획 하에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한국재담자료집성』, 『문학치료서사사전』 등이 간행되었으나 2010년에는 주춤했다. 겨우 민속원의 기획물 2책만이 간행 되었을 뿐이다. 그 중에 흥태한은 경상도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지역을 직접 조사하여 채록한 민담 80편을 묶어서 설화집을 간행했고,¹⁶⁾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가 1923년에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고향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조사하여 일본어로 제출한 과제물들을 엮은 것을 최인학이 번안해서 간행했다.¹⁷⁾ 현재 대부분의 설화 연구자들은 특정 유형의 설화를 연구할 때 『한국구비문학대계』와 임석재가 간행한 『한국구전설화』를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채록한 자료이고, 후자의 경우는 해방 이전 자료의 경우 저자가 보통학교 제자들이 제출한 방학 과제물을 엮은 것이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간행된 위의 두 자료집 또한 기존의 설화조사 수집방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회나 연구소에서 기획한 특집논문들의 경우 당시 관련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주제에 대한 검토는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학회에서는 ‘구비문학과 가족’이라는 기획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내놓았는데, 특히 설화영역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들은 주로 전통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복잡다단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새로운 식구로 편입되는 며느리와 사위의 상대 식구들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시선의 차이점에 관한 논의,¹⁸⁾ ‘아이지혜담’을 통해 부자관계의 권위가 역전되는 양상에 대한 검토,¹⁹⁾ 검암과 서애의 형제 관계에 대한 전승자의 의식,²⁰⁾ 가족 관계를 파탄시키고 지속시키는 주체인 친딸과 양며느리에 대한 제보자의 가부장적 편견 문제,²¹⁾ 혈연관계에 초점을 맞춘 가족 재생산의 문제와 그 전승 의식,²²⁾ 가족관계 담론과 가족 윤리 및 공동체 윤리 담론으로 재성찰하기 위한 효 설화 분석,²³⁾ 현대 딸태몽담의 특징적인 면모를 변화된 가족관계와 관련시킨 논의²⁴⁾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임재해는 설화 형성의 역사성과 전승자의 현실인식 사이의 거

- 13) 이월영, 『어우야담』 소재 인물담 연구 (1),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김상순,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 14) 김용기, 朱蒙, 濫祚, 洪吉童의 人物性格 研究 -출생담과 현실적 제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9, 우리문학회
- 15) 이동월, 『월간야담』의 전대 여성관련담 개작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16) 흥태한, 『한국구전설화집 17-민담편』, 민속원. 민속원에서는 2000년부터 한국의 구전설화를 주제별·지역별로 묶어서 『한국 구전설화집』이라는 제호로 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17책을 내놓았다.
- 17)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 엮음·최인학 번안, 『1923년 조선설화집』, 민속원. 이 책 또한 민속원에서 2009년부터 간행하고 있는 “한국 개화기 설화·동화집 번안·번역 총서” 시리즈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참고로, 총서1은 손진태의 『조선설화집』을, 총서2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을 번안했다.

- 18) 박현숙,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며느리 고르기>와 <사위 고르기>설화의 비교,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 19) 이성희,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 -넘어섬과 감싸 안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 20) 김기호, 「검암 설화에 나타난 형제 관계와 전승자 의식」,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 21) 임재해, 「친딸과 양자로 형성된 가족관계 파탄과 지속의 주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 22) 정충권,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과 혈연 문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이 논문 외에도 정충권은 「여성의 시각에서 본 형제 우애 설화에 나타난 가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를 통해 설화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23)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431-1)’ 유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 24) 박상란, 현대 태몽담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양상과 의미 -딸태몽담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리 때문에 설화 인식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즉, 그는 양자(養子)설화를 분석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내서 가족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체도 여성인 딸이고, 쫓겨난 아버지를 모셔 와서 가족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체도 여성인 양며느리인데, 제보자가 한결같이 친딸보다 양자가 낫다는 식의 남성주의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제보자 자신의 가부장적 편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설화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제보자의 인식이 곧 설화의 핵심내용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정충권은 혈연에 초점을 맞춘 가족 재상산과 관련된 유형의 구비설화 분석을 통해 가계 계승과 봉사(奉祀)는 철저한 부계 혈연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전승 의식을 보인다고 했는데, 앞의 임재해의 논의와 결부시켜 보면 전통 사회에서 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제보자들의 인식은 부계 혈연주의와 남성주의적 인식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도 ‘바다와 신화: 설문대할망 연구’라는 기획주제로 설문대할망 설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²⁵⁾를 시도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동아시아 해양신앙과의 관계나 명칭의 문제, 현대소설에서의 수용 등에 대한 지역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권태효의 논의는 기존의 설문대할망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살펴 볼 문제이나 온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양한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는 여성거인에 대한 명칭의 지역적 분포, 바다와 섬에서 활동하는 여성거인과 육지 여성거인의 모습에 있어서의 차이점, 여성거인과 남성거인간의 상관관계, 여성거인설화의 변이방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집논문과는 별개로 제주박물관에서는 『인류 문화의 판타지, 신화』²⁶⁾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9명의 저자가 참여하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의 신화에 대한 전공자들의

깊이 있는 논의들을 담아내고 있다. 세계 신화 속에서 한국 신화의 위치를 가늠해 보면서, 관련 연구자나 대중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획물이다.

다음으로 방법론적으로 역사적·민속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성과들²⁷⁾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설은 신화자료와 역사자료의 검증을 통해 백두산은 원래 인근에 살았던 고조선이나 고구려 사람들에게만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 되다가 고려 시대에 이르러 한민족 전체의 신성 공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져서 현대의 한국 사람들이 모두 백두산을 신성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면밀히 고찰했다.

신동훈은 민간에서 구연되는 설화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역사적 가치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설화는 그 특유의 서사적 문법과 논리체계 속에 역사의 진실을 주체적으로 꿰뚫어보는 노력과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를 존중하고 포용해야만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구비 설화 연구에서 늘 시뮬거리가 되는 설화 내용의 비논리성이나 역사적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인식의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 하겠다.

설화는 민요나 판소리, 무가 등과 비교해 볼 때 인류의 보편성에 조금은 더 기대어 있는 장르이다. 설화 연구 초기에 손진태를 위시한 민속학 1세대들이 민족 간의 설화 비교 연구에 관심을 지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10년에도 설화 영역에서 비교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신화 연구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간,²⁸⁾ 한국과 동유럽,²⁹⁾ 한국과 일본,³⁰⁾ 한국과 인도네시아,³¹⁾ 제주도과 본

25)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 선문대할망;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김동윤,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 김순자, “선문대할망”과 그 별칭(別稱), 이상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6) 국립제주박물관 편, 『인류 문화의 판타지, 신화』, 서경문화사

27) 조현설, The Significance of Perceptions of Baekdusan in Baekdu-related Myth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동훈, 사명당 설화에 담긴 역사인식 연구 -역사인물 설화의 서사적 문법을 통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황인덕, 「<조카의 반심을 교화한 토정> 전설의 역사의식과 역사배경」,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이준근, 『한국용신창사설화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도서출판 문현; 황진현, 「역사적 사실의 민속문화 형성과 민속의 사료 기능-상주시 청계마을의 견련 설화와 신앙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만주·한국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원오, 「동북아시아에서의 ‘뮈, 또는 부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원오, 「동북아시아에서의 ‘뮈, 또는 부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원오, 「동북아시아에서의 ‘뮈, 또는 부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토 및 제주도(32)와의 비교 연구가 시도되었다.

해외(33) 지역의 설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몇 편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조선족 설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34)과 중국 이족(彝族)의 창세신화에 대한 연구(35), 북한의 구전설화 연구 및 설화자료 현황과 설화양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36)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 특히 김종근의 연구는 남한의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 경향 및 인식과 사뭇 다른 북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즉, 북한의 구비문학은 구비설화의 개념에서 구술성을 전제하는 우리와 달리 인민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 학문의 범위에서만 구전문학 연구가 머물지 않고 인민 교양 차원에서 설화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자료를 출판하여 인민들에 의해 향유되고 있다는 점, 지배층 우상화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전설들이 계속 창작·향유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미 남한에서는 전통 설화의 이야기관이 거의 사

정적 존재'에 대한 비교신화학적 이해 -부리아트 <게세르>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화회; 우림길, 『동아삼국의 蚩尤전설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 29)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30)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繼母說話)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은경, 『三國遺事』와 『日本靈異記』의 佛敎靈驗說話 比較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현정, 韓日 說話文學 속에 나타난 佛敎思想 比較研究: 『三國遺事』와 『今昔物語集』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민담에서 '태양의 여성 상징' 복원,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1) 김현선, 「<밀의 기원>담의 Hainuwele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32) 강철, 濟州島 蛇神說話의 特性 研究: 本土 蛇神說話와의 比較,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선, 「대만(臺灣) 포농족(布農族), 제주도(濟州島), 궁고도(宮古島)의 서사시(敍事詩)와 신화(神話) 비교(比較)」,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정진희, 제주도(濟州島)의 유구(琉球), 충승(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검토와 전망,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현선,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모 -제주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그리고 환태평양의 신화 총체적 판도 조망」,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3) 여기서 해외라 함은 한국을 제외한 조선족 거주 지역, 북한 지역을 포함한 개념이다.
 34) 강봉근,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난 두꺼비 보는 설화의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문학회; 임철호, 「두만강신의 성격과 의미 연구 -조선족 두만강전설을 대상으로」, 『우리말글』 49, 우리말글학회; 최향, 『황구연전집』 소재 한국 문헌설화의 재구성의식,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35) 조현설, 이족(彝族) 신화 및 구비서사시 연구 -창세서사시 <뜨이꺼>와 추승 이족 호랑이 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36) 김종근,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라졌고, 출판을 통해서도 설화 양식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면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야기 문학적 설화의 경우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한데, 그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도 설화가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37)도 몇 편 확인된다.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설화의 현재적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설화 자체가 도구화·수단화 되면서 설화 텍스트 활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 결과 설화가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도외시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설화의 수단화와는 또 다른 맥락으로 설화의 원형콘텐츠화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연구 추세를 보면, 문화콘텐츠(38)나 스토리텔링(39)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다.

설화가 현대문학에 수용 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연구(40)나 근대 이후에 설화가 기록화 되어 한 갈래를 이룬 동화에 대한 연구(41) 근현대의 다양한 설화담본들에 대한 연구(42) 구비설화에 대한 신세대들의 해석에 대한 연

- 37) 이성희, 「'단군신화'의 한국어 교재 수용 양상 고찰 및 수록 기준 모색: 원전 수용방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3-4(통권121), 한국학중앙연구원; 송지혜, 한국어교육에서의 설화를 활용한 언어·문화 연계 수업방안 연구: 중국인 초급 학습자 대상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노제운, 「오세암, 설화의 심층의미와 아동문화콘텐츠로의 변용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61, 민족어문학회; 노성환, 『여수시민에게 바치는 토끼 이야기 오동도 토끼설화의 세계성』, 민족원
 39) 박기현, 구비 군왕설화의 의미전달 방식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영, 「변신설화의 원형적 의미구조와 그 현대적 변용: 구령이 변신담에 담긴 수성·인성·신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수연, 「오세암 서사의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자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세주, 우산군 '우해왕' 전설의 스토리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40) 김홍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설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 '춘향설화'와 '처용설화'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수, 구비설화의 현대시 수용 양상 연구 -서정주 시의 여성인물 설화 수용을 중심으로,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이원지, 「한국 설화의 연극적 변용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수용과 변주에 관한 담론적 연구, 『국어교육』 132, 한국어교육학회
 41) 김대숙, 현대판 그림동화의 문학적 의의와 기능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김경희,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김경희, 연성흥(延星興)의 「동화구연방법의 이론과 실제」,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구⁴³⁾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설화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설화가 생명력을 지니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라 할 수 있는 전승과 그 중요한 공간인 이야기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어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야기관 활성화의 요인과 성격에 대한 연구⁴⁴⁾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어 논외로 하고, 최원오와 심우장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원오⁴⁵⁾는 19·20세기에 이야기가 구비전승뿐만 아니라 이른바 책에서 책으로의 전승이라 할 수 있는 ‘서승(書承)의 서승(書承)과정을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서승은 구승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당시의 표제에서 ‘기록하다(錄)’나 ‘짓다(作, 記)’가 아닌 ‘설(說)’, ‘담(講)’, ‘문(聞)’, ‘담(談)’의 제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구승(擬似口承)’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기록정신은 각종 이야기를 ‘기(奇)’로 포괄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독자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표제로 삼았다고 했다.

심우장⁴⁶⁾은 근래에 설화 이야기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전승 실험’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전승과 변이의 원리를 추적했다. 그는 ‘구비문학론’ 수업을 듣는 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승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하국대적퇴치설화>를 단계적으로 구연⁴⁷⁾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국면들에 주목했다. 이 실험을 통해 ‘이야기 스키마(Story Schema)’가 이야기의 구성과 전승, 변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논증했다. 그의 연구는 그간 이야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승과 변이의 메커니즘을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가시화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3. 민요

민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기준에서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민요라는 장르에 내포되어 있는 음악성과 문학성을 기준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주로 특정 지역의 기능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⁴⁸⁾이 대표적이다. 민요에서의 음악적인 연구는 주로 민요가 음악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지방마다 독특하게 구별되는 노래 투인 ‘토리’, 빠르기나 가락을 주도하는 박자인 ‘장단’, 주된 음의 앞과 뒤에서 꾸며주는 꾸밈음인 ‘시김새’, 갖가지 음높이와 길이를 가진 음을 가로로 결합·형성하는 음의 선적(線的) 연결이라 할 수 있는 ‘선율(가락)’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구비문학의 연구 영역보다는 음악학의 영역 쪽으로 추가 더 기울어져 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민요 연구의 가장 흔한 패턴은 토속민요의 민요권과 현장론의 결합을 통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지역의 민요(대부분은 기능요들이다)를 대상으로 전승 양상과 가창방식을 살펴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설의 구성과 그 의미를 분석하거나 장르양상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2010년에도 이러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연구 성과들⁴⁹⁾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한

42) 이순욱, 근대 사명당 담론과 밀양 지역문학,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화학회; 박상란, 출산경험의 서사화와 현대 태몽담 -뽕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오세정, 신화, 판타지, 팩션의 서사론과 가능세계,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14(2),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43) 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 변화와 ‘祭祀說話’의 미래 -<644-3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친 혼령> 설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2, 한국문화언어학회;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방향, 『국문학연구』 21, 국문화학회

44) 김기욱, 「이야기관 활성화의 요인과 그 성격,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45) 최원오, 「이야기의 서승(書承)에 대한 근대적 관심과 기록정신, 『동아시아고대학』 21, 동아시아고대학회

46) 심우장, 「이야기 스키마와 구비설화의 전승과 변이,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47) 한 명이 세 명에게 구연을 하고 청자였던 세 명이 다시 각각 2~3명에게 구연하는 방식으로 5단계가 진행된다. 구연은 하루가 지난 뒤에 단 1회만 이루어졌다.

48) 신은주, 서해안지역 배치기소리의 토리 고찰,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전남지역 장원설소리의 유형별 분포와 음악 고찰,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모형오, 「경상남도 전래동요의 음악적 분석,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김진찬, 세마치장단 구조분석: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이해원, 강원도 토속민요의 시김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용록, 충남 모심기소리를 통해 본 민요 선율의 동일성과 동질성,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손인애, 공동 두레패 <소동패>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49) 류경자,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자운, 「영남지역 정자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설구성,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나승만, 「진월 전어잡이

국민요학의 문제의식 추이를 검토한 후 경기도 민요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구⁵⁰⁾가 있었다. 강등학은 최근 한국민요학의 연구추이는 생태론적 연구, 문학학적 연구, 음악학적 연구, 연행론적 연구, 국외민요연구, 북한지역 민요연구, 소비양상과 문화성향 연구, 가창자 연구, 문헌민요 연구, 전승 및 현재화 연구 등의 범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경기도 민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음악학적 연구뿐이라며 다른 범주의 연구에 대한 분발을 촉구했다.

토속민요와 대척점에 있는 통속민요에 대한 연구도 활하게 이루어졌다. 통속민요는 주지하다시피 잡가(俗歌)를 불러 온 전문음악인들에 의해 만들어져 잡가의 하나로서 연행된 민요품의 노래⁵¹⁾이다. 타령조 통속민요의 전승과 변모 양상에 대한 논문⁵²⁾이나 휘모리잡가의 노랫말을 분석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문⁵³⁾들이 대표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단 이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음악환경 속에서도 전통음악적 요소와 서양음악적 요소가 만나는 제3의 혼종적 음악활동이 공통적으로 시도된 것을 통속민요와 신민요 등을 토대로 서로 비교 검토한 연구⁵⁴⁾가 있었다.

통속민요와 관련하여 당시 경기잡가의 대가였던 박춘재의 재담소리에 대한 학위논문⁵⁵⁾이 제출되어 관심을 끈다. 그간 박춘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음악학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된 박춘재가 불렀던 경기민요의 노랫가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손태도에 의해 일찍이 「경기명창 박춘재 論」⁵⁶⁾으로 박춘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문학연구 분야에서 본격적인 학위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신지대는 박춘재 재담소리의 서사구성 방식과 그 지향에 주목을 했다. 그리하여 서사구성 방식을 ‘연행예술에 대한 관심과 확장 변용-〈장대장타령〉’, ‘굿의 패러디-〈장대장타령〉, 〈장님홍내〉, 〈개넛두리〉’, ‘시정 생활상에 대한 관찰과 포착-〈각색 장사치 흥내〉’로 유형화했다. 그런 다음 박춘재 재담소리의 지향을 웃음 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성격을 ‘의외성’과 ‘해학’으로 규정했다.

장유정은 유성기 음반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에 대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연구자인데, 한 해 동안 다양한 주제로 연구 결과물들⁵⁷⁾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에서 시기를 조금 더 내려와 1950년대 한국전쟁과 관련된 노래에 대한 고찰⁵⁸⁾을 통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민요 또한 현대의 대중문화나 다문화사회, 교육 등과의 상관관계 아래에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⁵⁹⁾가 진행되었다. 권오경은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민요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는 다문화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요

소리의 전승 맥락 고찰,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권주림, 충청남도 민요에 관한 연구: 모심기 소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순현, 충북민요의 자료 조사 현황과 활용방향 모색,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배인교,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논농사소리와 <산유화가>,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정한기, 영남지역 <나무꾼노래>에 나타난 신세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강등학, 「〈정자소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50)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문제의식 추이와 경기도 민요연구의 과제,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51)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52) 손인애, 「경기 통속민요 <매화타령>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방아타령>계 노래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김인숙, 「유성기음반을 통해 본 민요 <노랫가락>의 전승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53) 전계영, 「〈맹꽁이타령〉 노랫말의 의미,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54) 이소영,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통속민요와 신민요, 그리고 창작민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55) 신지대, 「박춘재의 활동상과 재담소리의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 손태도, 「경기명창 박춘재 論, 『한국음악학』 7, 한국음악학, 1997

57) 장유정,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 고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장유정, 유성기 음반(SP) 수록 대중가요 아리랑 텍스트의 반복과 변주, 『한국문화과 예술』 6, 숭실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장유정, 이하운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특성 고찰,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서양 대중음악의 수용과 양상 고찰-제즈송을 중심으로, 『우리춤연구』 13, 한양대학교 한양우리춤연구소

58) 장유정, 「1950년대 한국전쟁 관련 노래 읽기, 『일본학연구』 3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59) 이동근, 「〈정선 아라리〉와 <양반전〉의 문화콘텐츠적 융합,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권오경,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박관수, 「제7차 개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민요교육의 문제점 연구,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장유정,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고찰, 『대중음악』 6, 한국대중음악학회; 장유정, 이 땅에서 ‘별’로 산다는 것은-대중가수의 탄생에서 귀환까지, 『역사비평』 90, 역사문제연구소

인을 차단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민요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했다. 이동근은 정선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두 작품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화 하는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정선을 배경으로 하는 <양반전>과 고유의 문화유산인 <정선아라리>을 대상으로 두 ‘원형콘텐츠’를 발전시켜서 ‘거점 콘텐츠’인 <양반 아라리>와 <양반 아라리> 스토리텔링’을 개발한 다음, 두 개의 거점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행 장르’를 상정하여 <정선 아라리>의 확장된 문화가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박관수는 학교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민요학자답게 민요교육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7차 개정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수록된 민요를 분석했는데,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각 개체요를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교과서의 민요 선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민요의 운율적 특성과 음악적 특성을 혼동하거나 사실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개체요 내지는 장르 자체에 대한 오류도 다수 범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교과서 집필자들의 민요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외의 민요에 대한 연구 성과들도 몇 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행본으로 나온 장익선⁶⁰⁾의 연구 성과가 우선 눈에 띈다. 연변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한 그는 연변의 민요를 채보·분석하여 민요의 장단과 가창방식 등의 음악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민요에 기초하여 작곡된 곡들이 연변과 중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전승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문학적인 측면은 배제된 채 주로 음악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연변민요를 음악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두 연구자의 연구 성과⁶¹⁾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나베 마사히로는 구호와 구령이 기반이 되는 노동가

요인 동아시아 삼국의 배 끄는 소리를 비교연구하여 가요의 내용에 따라 구호소리, 지시어구, 풍경 등을 노래한 즉흥부분, 명소(名所)를 열거한 것/난소(難所)를 열거한 것의 네 종류로 분류하며 기타의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배 끄는 노래에 대한 ‘기반적인 연구’이기 때문이었는지 가사의 비교라든지, 정서의 비교 등 진일보한 작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하겠다. 우승표는 한·중·일의 가요 중에 인간(혹은 신)의 성장과정을 서술하는 형식의 가요가 존재한다며 이를 ‘성인서사 가요’로 명명했다. 그리고 중국의 성인서사 가요의 구연 현장을 중심으로 그 형식과 기능, 그리고 신화와의 관계를 고찰했다.

한국민요학회에서는 아리랑을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김기현⁶²⁾은 <문경새재아리랑>은 원래 기층에서 향유되었던 토속소리인 <문경새재소리>에서 기인했음을 밝히고, 20세기 이후 다른 개체요와 여러 <아리랑> 사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문경새재아리랑>은 강원도 지역 아리랑과 맥을 대고 있는 오래된 노래로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지닌 토속적인 향토민요 아리랑이라는 점에서 아리랑사적인 의의를 부여했다.

박관수⁶³⁾는 그의 논문에서 어러리와 관련하여 노래명의 변화, 소리의 통일화 지향, 향유의 적극적 상실 문제를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명보다 어러리는 노래명이 강원도에서는 보편적으로 전승되었으며, 당시에 어러리가 자족적으로 전승할 때는 개인별, 지역별로 박자와 선율 등이 다양했다고 한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자생하던 모민요인 어러리가 서울에 유입되어 자민요인 ‘정선아리랑’을 생산하면서 자민요는 사람들의 활발한 왕래와 축음기, 라디오 등 문명기기의 도움을 받아 모민요인 어러리를 축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어러리의 소리들이 통일화 되고 향유층에서 향유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게 된 작금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김혜정⁶⁴⁾은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적 구조에 따라 유형을 나눈 다음 그 특성을 살피는 연구를 내놓았다.

60) 장익선, 『연변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 민속원

61) 마나베 마사히로[眞鎬昌弘], 『강배 끄는 소리와 그 환경-일본·한국·중국』,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우승표, 『成人敍事 歌謠의 실태와 神話-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

62) 김기현,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의 아리랑사적 위상』,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63) 박관수, 『어러리와 아리랑에 대한 문화적 분석』,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64) 김혜정, 『정선아리랑의 음악적 구조와 특성』,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민요의 아름다운 선율과 이야기의 흥미가 만나는 접점에 서사민요가 존재한다. 서사민요는 사실이 길고 서사구조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요 향유층의 의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민요에 대한 연구로 서영숙의 연구 성과들⁶⁵⁾이 돋보인다.

민요 자료집도 두 권이 간행되었다. 『민요집』⁶⁶⁾은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시리즈로 간행된 것인데, 중국 조선족의 민요 428수를 로동요, 세태요, 애정요, 풍자요, 서사요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들 사이에 애창되는 신민요 몇 수를 따로 묶었다.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 전승 민요 1』⁶⁷⁾은 편자인 류종목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요를 채록하여 그 사실과 음원을 책과 CD로 만든 것으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부산의 민요를 모은 것이다.

이 밖의 연구들로는 충주 지방의 연희작품인 <탄금대 방아타령>이 민요, 농요, 방아노래로 다르게 해설되는 현상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충북작품 <충북의 농요>가 <탄금대 방아타령>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 변개양상을 고찰한 연구⁶⁸⁾와 기능요 중에 치병과 관련된 속신의식요의 치병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와 사실구성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⁶⁹⁾ 달거리 민요의 연행 맥락과 시간 의식에 대한 연구⁷⁰⁾ 동물노래만을 대상으로 그 형상화 방법과 여성민요적 의의를 고찰한 연구⁷¹⁾ 등이 있었다.

2.4. 무가

구비문학의 제 영역 중에서 자료집의 간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

제 간행 자체가 가장 활발하기도 한 분야가 바로 무가이다. 그런데 2010년에는 제대로 된 무가자료집의 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서울 경기지역 전통극의 한 유파인 노들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관련 전공자들에게 의해 이뤄져 그 결실이 책으로 나왔는데,⁷²⁾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노들제의 무가사설들이 실려 있어 부분적인 자료집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외에는 구리시 갈매동의 도당극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서⁷³⁾와 다양한 사진 자료와 개별 사례를 통해 강화도의 가정신앙을 조사한 자료집⁷⁴⁾ 정도가 전부이다.

무가 분야의 연구는 크게 보아 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서사무가[무속신화]에 대한 연구와 현장연행에 기초한 극 자체에 대한 연구로 나뉘 볼 수 있다.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무가 영역에서 양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다.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으로는 제주도과 본토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았는데, <차사본풀이>,⁷⁵⁾ <초공본풀이>,⁷⁶⁾ <맹감본풀이>,⁷⁷⁾ <원천강본풀이>,⁷⁸⁾ <문전본풀이>⁷⁹⁾와 같은 일반신본풀이에 대한 연구와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연구,⁸⁰⁾ 제주도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에 대한

72) 전통극노들제연구단 위음, 『전통극 노들제 연구』, 민속원

73) 김종대 외, 『구리시 갈매동 도당극』, 민속원

74) 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강화의 가정신앙』 1·2, 민속원

75) 권태호·김윤희,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강진욱, 김치(金緻) 인물 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강진욱, <김치(金緻)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 문제,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강진욱,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김치(金緻)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76)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신연우,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7) 김형근,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8)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79) 성정희,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65) 서영숙, <쌍가락지 노래>의 서사구조와 전승양상,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서영숙, <그릇 깬 머느리 노래>의 전승양상과 향유의식,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66) 김동훈·허경진·허희훈, 『민요집』 연세국학총서 73/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17, 보고사

67)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 민요 1-부산편』, 민속원

68) 김영진, 「<탄금대 방아타령>의 명칭과 변개양상」,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69) 최자은, 치병(治病) 관련 속신의식요(俗信儀式謠)의 치병 원리와 사실 구성과의 관계,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70) 이옥희, 「열두달을 노래한 민요의 연행 맥락과 시간 의식」,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71) 최자은, 「영남지역 정자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실구성」,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연구,⁸¹⁾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여성문학적 의의를 고찰하는 논문⁸²⁾ 등이 대표적이다.

본토의 서사무가 연구는 제주도에 비해 약소했는데 <칠성풀이>⁸³⁾ <일월노리푸념>⁸⁴⁾ <도랑선비와 청정각시>⁸⁵⁾ <바리공주>⁸⁶⁾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제주도와 본토의 무속신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⁸⁷⁾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주로 두 신화권의 신화들에서 특정 관념이나 상징 및 모티프들을 추출해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서사무가 연구를 제외한 무가의 연구는 주로 굿의 연행 현장인 각 지역의 굿판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의 리듬형에 대한 연구,⁸⁸⁾ 황해도 지역의 대동굿을 대상으로 한 생태론적 연구,⁸⁹⁾ 서울 지역의 굿을 대상으로 한 굿거리의 성격 변화나 사설의 성격 및 재차 구성과 의미 등을 규명한 연구들,⁹⁰⁾ 경기도 지역의 도당굿 연구,⁹¹⁾ 경

80)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81) 김은희, 「제주도 본풀이와 놀이의 상관성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82)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83) 정제호,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변별적 성격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 서대석, 「<일월노리푸념>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85) 한양하,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86) 강진옥, 「바리공주」의 불교제재 수용양상,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 국제비교한국학회

87)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이주영, 「代命型 서사무가들의 이본 간 관계 및 구조 결정 요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민속학』 20, 한국민속학회; 임재해,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88) 강순탁, 「동해안 별신굿의 리듬형 연구 : 부정굿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 김현선, 굿의 생태론적 의의 연구 -황해도 대동굿의 『별대감굿』을 예증으로 삼아,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90) 염원희, 서울굿 <호구거리>의 성격 변화, 『한국민속학』 21, 한국민속학회; 홍태한, 「서울굿 뒷전의 맹인거리 사설」, 『한국민속학』 20, 한국민속학회; 홍태한, 서울 진오귀굿의 재차 구성과 의미, 『공민문화연구』 22, 한국공민문화학회; 권선경, 서울 부군당굿에서 <황제풀이>의 의미,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북 안동의 하회별신굿을 대상으로 한 생태민속학적 연구⁹²⁾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선과 조정현은 공히 굿의 생태론적 혹은 생태민속학적 의의에 주목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근래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생태사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무속에서도 자연물(돌, 나무, 우물 등)을 신격관념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이 공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태사상과 상당히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속학회에서는 ‘굿놀이’를 기획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그 성과물을 학회지로 묶어냈다.⁹³⁾ 이 기획물에는 굿놀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허용호의 「‘굿놀이’의 역사 기술을 위한 토론 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글은 굿놀이의 역사 기술을 위한 ‘도론(導論)’이면서 동시에 기획 주제로 묶인 다른 글들에 대한 ‘도론’이기도 하다. 사실 굿놀이와 관련하여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가면극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무가의 무극[巫劇; 무당굿놀이]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그 정체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혼란의 원인을 그는 ‘극, 독립성, 재미’ 등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굿놀이를 ‘다른 무엇으로 가장하여 대화나 몸짓 혹은 춤과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의한 후, 굿놀이가 ‘민속극으로부터의 탈출’과 ‘굿으로의 복귀’를 지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신앙이나 가정신앙 등의 민간신앙⁹⁴⁾에 대한 연구와 마

91) 홍태한, 「고양시 도내동도당굿 현장 보고」, 『한국민속학』 21, 한국민속학회

92) 조정현,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 -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93) 허용호, ‘굿놀이’의 역사 기술을 위한 토론; 손태도, 굿놀이와 재담소리; 김신호, 굿놀이와 탈놀이의 공통성과 독자성; 김은희, 「황해도 굿의 구조와 굿놀이의 위상에 관한 시론」; 권선경, 「무당굿놀이에 등장하는 맹인의 성격과 의미」; 이경엽, 호남지역 무당굿놀이의 연행양상과 의미; 김형근, 남해안지역 굿놀이의 양상과 비교; 김덕목, 연극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황해도굿; 이주영, 「<호살랑>과 <호탈>의 주술과 연행주체의 세계관 비교」(이상 『한국민속학』 21, 한국민속학회)

94) 김일훈, 충남지역 용왕제 연구 : 가정신앙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태한, 친정에서 따라온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남도민속연구』 20, 남도민속학회; 홍태한, 강화도 교동도 가정신앙 전승의 다양성, 『도서문화』 35, 도서문화연구소; 홍태한, 강화도 가

을제의나 굿과 관련한 축제⁹⁵⁾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근래에 무가 연구에서 ‘축제’는 중요한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들에 무가의 제반 요소들이 ‘콘텐츠’라는 명목 하에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작금의 상황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강릉단오제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이 각각 한편씩 나왔는데, 강릉단오제의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논문⁹⁶⁾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복원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⁹⁷⁾이어서 흥미를 끈다. 전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를 문화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하고 있고, 후자는 아키바 다카시가 1930년대에 민속지적 현재로 재현한 강릉의 로컬한 강릉단오굿이 1966년 임동권에 의해 내셔널한 문화재로 만들어졌고,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글로벌한 문화유산이 되었는데, 임동권의 ‘강릉단오제’에서 아키바의 ‘강릉단오굿’으로의 복원주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논의들도 몇 편 확인 되었다. 백선희⁹⁸⁾는 한국의 샤머니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굿에서의 공수를 심리치유의 치유적 대화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춤의 치유적 요소는 병굿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보고, 춤을 통해서 맺히고 응어리진 상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했다. 박일영⁹⁹⁾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의 전통종교와 문화, 민간신앙에 대하여 한결같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파리의외방 전교회 선교사들과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 수도사들을 비교하여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 이들이 서로 어떤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사상이나 시대정신이 깃들여 있는지를 천착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밖에 일제 강점기 서울 서빙고 지역과 부군당 중수집단 연구,¹⁰⁰⁾ 공무도화가 배경설화와 무혼굿의 관계에 대한 연구,¹⁰¹⁾ 무당의 소명(召命) 체험이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¹⁰²⁾이나 강신무 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¹⁰³⁾ 무속신앙을 대상으로 미풍양속에 내재된 욕망의 의미,¹⁰⁴⁾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민속예능인 ‘가구라(神樂)’에 대한 연구¹⁰⁵⁾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융합 현상과 굿문화를 접속시켜 그 닻음과 차이를 검토하고 굿문화 존속의 의미와 가치를 논한 연구¹⁰⁶⁾ 등이 있었다.

2.5. 판소리

흔히 판소리를 문학·음악·연극적인 요소들이 모두 녹아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판소리에 대한 연구 동향은 다각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판소리는 판소리계소설이나 근대의 창극, 해방 후의

정신양 대감의 성격 연구, 『도서문화』 36, 도서문화연구소; 홍태한, 무신도를 중심으로 한 부군당의 원형 모색, 『한국민속학』 51, 한국민속학회; 장정태,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2, 한국사상문화학회; 조정현, 공동체신앙 사제자의 범주와 유형,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박종익, 예산군 대술지역 동계 연구,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95) 윤동환, 별신굿의 역사적 전개와 축제성,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조정현, 「별신굿의 대항제적 성격과 축제적 연행구조」,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홍태한, 무당굿의 축제 가능성과 방향 모색, 『공인문화연구』 20, 한국공인문화학회; 김근태, 한·일 마을제의(祭儀)의 축제적 성격 비교 고찰,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김인희, 중국 루오우오족 호랑이 축제의 신년제적 특징,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한양명, 「전통축제와 축제적 연행의 구성과 진행 방식에 관한 시론-해월(解越)과 포월(匏越)의 미학적 가능성 탐색」,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임재해, 「한국 축제 전통의 지속 양상과 축제성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96) 안광선, 「강릉단오제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연구」,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7) 남근우, 「복원주의 민속학의 아이러니-‘강릉단오제’의 끈경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98) 백선희, 「한국 샤머니즘(巫)과 민속춤의 치유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99) 박일영,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대응태도 비교연구,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100) 김태우, 「일제시대 서울 서빙고 지역과 부군당 중수집단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101) 현승환, 「공무도화가 배경설화와 무혼굿」,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102) 박일영, 「무당의 소명(召命) 체험이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103) 홍태한, 「강신무 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 『남도민속연구』 21, 남도민속학회

104) 홍태한, 「미풍양속에 내재된 욕망의 의미 고찰-무속신앙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16, 실천민속학회

105) 남성호, 「가구라(神樂)의 신들림과 표상적 장치」,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106) 이영배, 「미디어융합 시대와 굿문화 - 굿문화의 존속과 의미에 관한 성찰」, 『우리말글』 48, 우리말글학회

여성국극까지 맞닿아 있어 그 장르적·시대적 스펙트럼 또한 상당하다.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난점이 있음을 전제하고 2010년에 발표된 연구 성과들의 큰 줄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판소리사에서 중요한 변혁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말~20세기를 기준으로 판소리의 변모 양상을 고찰한 김영주의 박사학위논문¹⁰⁷⁾이 제출되었다. 연구자는 19세기말 판소리의 레퍼토리 축소와 실창(失唱) 판소리의 특징에, 20세기 판소리의 레퍼토리 확대와 창작 판소리의 특징에 각각 논의의 초점을 두고 판소리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실창판소리와 창작판소리가 오히려 전통 5마당에 비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당대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 300년 전의 판소리를 대중화시키려는 작금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지를 보이고 있다. 판소리 레퍼토리의 소멸과 확장이라는 일련의 현상들이 판소리가 철저히 ‘당대’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으며 또 딛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지만, 판소리의 미래적 전망에 대한 대안의 제시로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점은 분명히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판소리 영역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연구는 아무래도 개별 판소리 작품론이다. 작품별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역시 <춘향가>¹⁰⁸⁾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심청가>¹⁰⁹⁾ <적벽가>¹¹⁰⁾ <홍보가>¹¹¹⁾

107) 김영주, 「19세기말~20세기 판소리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8)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의 교감과 번역상의 문제, 『어문학』 107, 한국어문학회;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학회; 조도현, 대중문화 코드로 본 <춘향전>의 현대적 변이 - 드라마 <쾌걸 춘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문학회; 김진영, <춘향전>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의 다양화 방안 모색 -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김석배,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임향란, 조선영화 『춘향전』과 한국 특집드라마 『향단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109) 김도영,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대목」 연구: 성우향의 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석배, 「심청가 결말부의 지평전환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이동희, 「부모회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의,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110) 김소라, 「<적벽가> 군사타령 중 '고당상 대목' 비교 분석: 박봉술, 임방울, 정권진 소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훈, 「폴리독판 <적벽가>를 통해 본 판우 위업 대목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손영은, 「신재호 본 <적벽가>

<토끼전>¹¹²⁾ <장끼전>¹¹³⁾ <변강쇠가>¹¹⁴⁾ <강릉매화타령>¹¹⁵⁾에 이르기까지 2010년에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반면 예년에 비해 판소리의 음악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는데, 진양조 장단에 대한 연구¹¹⁶⁾와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¹¹⁷⁾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판소리는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는 구비문학의 다른 하위 영역뿐만 아니라 고전소설과도 장르교섭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류호열의 박사학위논문¹¹⁸⁾은 <숙영낭자전> 텍스트에 기초하여 설화, 소설, 판소리, 서사민요 사이의 장르적 변모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이 외에 판소리의 장르교섭 양상에 관한 논문들¹¹⁹⁾이 다수 확인되었다.

판소리의 인물형에 대한 석사학위논문도 2편 제출되었는데, 판소리의 방자형 인물과 탈춤의 말뚝이형 인물의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¹²⁰⁾와 판소리

사실에 나타난 나열 표현 양상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이정원, 「<화용도>에 나타난 '뭍'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11) 정충권, 「<홍부전>의 아이러니와 웃음」,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배연형, 홍보가(성학회 본) 소리책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강미정, 홍보가에 나타난 관계 지속의 문제와 그 문학치료적 효용」,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권순궁, 홍부전의 현대적 수용」,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112) 최광석, <토끼전>에서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의 공존과 그 의의」,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113)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114) 김정은, 「'용녀'의 상부살풀이 과정으로 본 <변강쇠가>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115) 이문성, 「인물 작명과 골생원의 형상으로 본 <강릉매화타령>」,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116) 박희순, 「진양조 장단의 구현양상」,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117) 유선미,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118) 류호열, 「<숙영낭자전> 서사 연구: 설화·소설·판소리·서사민요의 장르적 변모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 이유진, 「판소리 시조 수용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최진형, 「시조와 판소리의 관련 양상」,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전영주, 판소리 유행대목의 가요화 양상과 그 의미 -<쑥대머리>, <추월만정>, <군사설움타령>의 시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20) 조현영, 「방자형 인물과 말뚝이형 인물의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재 반열녀적 인물에 대한 여성 자의식이 형상화 양상을 고찰한 연구¹²¹⁾가 확인되었다.

판소리 향유층과 관련된 일련의 논문들¹²²⁾도 보였는데, 판소리 향유에 대한 논문이지만 하나는 유성기음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동래정씨 문중(門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접근법은 상이했다.

구비문학의 여타 하위 영역들에서도 그러했듯이 판소리 영역에서도 판소리의 현대적 수용 양상이라 할 수 있는 논문들¹²³⁾을 여러 편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국극이나 창작판소리, 어린이 창극 등 판소리를 모태로 하고 있는 장르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현대소설, 아동극, 학교 교육이 판소리를 수용하고 있는 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판소리와 관련하여 해외 비교 연구는 판소리 너름새와 구기(口技), 우희(優戯)의 관련 양상을 고찰한 석사학위논문과 판소리 <적벽가>와 경극 <적벽오병(赤壁鏖兵)>의 서사구조를 비교 분석한 논문, 전주 대사습과 중국의 소주 호구(虎丘) 곡회(曲會)를 중심으로 판소리와 곤곡청창(崑曲淸唱)의 전통 계승 발전전망에 관한 비교 연구 등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과 중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비교 논문들이었다.¹²⁴⁾

그밖에 한국 판소리 명창 제도와 내부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¹²⁵⁾ 판소리

의 “중타령” 연구,¹²⁶⁾ 한승호 명창의 판소리에 관한 연구,¹²⁷⁾ 신재효 사설에 나타난 성적 어휘와 성묘사에 대한 연구,¹²⁸⁾ 연극 <은세계>의 존재 양상과 성격에 관한 연구¹²⁹⁾ 등이 있었다.

판소리 일반론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김현주¹³⁰⁾의 논문이 주목된다. 김현주는 동양미학의 보편성과 한국미학의 특수성이라는 구도 속에서 판소리의 미학체계를 규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판소리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고 발흥한 실학정신이나 도가적 사유의 반추, 그리고 무교적 사유의 부상 등을 반영하는 국면에서 판소리 고유의 특수성이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비록 시론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동양미학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와 판소리의 미학체계를 규명해보려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판소리에 관한 단행본으로 판소리학회에서 25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 하면서 그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판소리 명창론』¹³¹⁾이 우선 주목된다. 2년 전에 나온 『판소리의 전승과 재창조』에 이은 두 번째 기획물이다. 그 외에 판소리 유파나 명창에 대한 저서로,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¹³²⁾ 『동편제 명창 송만갑의 예술세계』¹³³⁾ 등이 출간되었다. 고전소설인 <홍부전>, <옹고집전>과 함께 판소리 창본에 대한 주석을 단 단행본도 출간되었는데¹³⁴⁾, 동일 계열의 고전소설과 판소리의 텍스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대중들에게 <홍보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본 또한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어 관련 전공자들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1) 박윤희, 「조선후기 여성 자의식의 형상화 양상: 판소리 所載 反烈女의 인물에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2) 성기린,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송미경, 동래정씨(東萊鄭氏) 문중(門中) 내 판소리 문화 향유의 일양상,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123) 송소라, 「여성국극의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현실대응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동훈, 「창작 판소리의 길과 <바리데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유영대, 판소리 전통과 최명희의 혼혈,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김동진, 어린이 창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손준형, 아동극에서 우리 옛이야기의 구술적 가치와 양식적 수용 방안: 아동극 ‘저승의 용사 강림도령’ 창작에서 ‘판소리 양식’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채수정, 학교 교육 안에서의 판소리 교육 현황과 실태,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124) 우지용, 「판소리 너름새와 口技, 優戯의 관련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란, 판소리 <赤壁歌>와 경극 <赤壁鏖兵>의 서사 구조비교,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정원지, 한중(韓中) 전통(傳統) 소리 예술(藝術) 판소리와 곤곡청창(崑曲淸唱)의 전통(傳統) 계승(繼承) 발전전망(發展展望)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전주(全州) 판소리 대사습(大私習)과 중국(中國) 소주(蘇州) 호구(虎丘) 곡회(曲會)를 중심(中心)으로,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125) 이화정, 한국 판소리 명창 제도와 내부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전주 대사습 명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6) 최지현, 판소리 “중타령” 연구: 박록주와 김소희의 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7) 강승의, 「한승호 명창의 판소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8) 이문성, 「신재효 사설에 나타난 성적 어휘와 성묘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129) 이 철, 연극 <은세계>의 존재 양식과 성격,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130) 김현주, 「판소리의 사유체계와 동양미학적 기반」,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131) 판소리학회, 『판소리 명창론』, 박이정

132) 최동현,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 민속원

133) 유영대, 『동편제 명창 송만갑의 예술세계』, 민속원

134) 정충권, 『홍부전·홍보가·옹고집전』, 문학동네

2.6. 민속극

민속극 영역에서 문학 쪽에서의 학위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다만, 연극 영화과에서 안성 남사당 박우덕이 축제의 구조와 효과에 대한 박사학위논문과 무용학과에서 북청사자놀음에 내재된 표현적 상징성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이 나왔는데, 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워 논외로 한다.

단행본의 간행 또한 수적으로는 미미했다. 그러나 연구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한 두 권의 책이 간행되어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공연문화학회에서는 그간 학회지에서 발표된 가면극 분야의 연구논문들 중 17편을 엄선하여 『가면극의 종합적 고찰』¹³⁵⁾이라는 타이틀로 기획물을 선보였다. 가면극의 의미와 해석, 가면극을 바라보는 시각, 가면극의 음악과 무용, 가면극과 주변문화의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저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가면극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연극사학자로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낸 서연호는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¹³⁶⁾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민속극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면의 제의극,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창극, 광대의 익살극, 불교의식과 연희, 죽음의례와 연희, 두레와 풍물놀이, 정재춤, 민속춤 등 한국의 전통연희를 총망라했다.

주지하다시피 민속극에는 가면극과 인형극, 탈탈 등의 하위범주가 있다. 이 중에서 예년처럼 민속극의 연구는 주로 가면극에 치중되어 있었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개별 가면극의 연행 배경이나 연희성, 신명 구현 원리, 관능적 요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었다.¹³⁷⁾

개별 가면극과 관련된 논의 중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 2편 있어 눈길을 끈다. 손태도¹³⁸⁾는 현재

하회의 서낭신은 처녀이고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등장인물인 각시광대가 서낭신인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는 1980년에 보고된 자료 이후에 고착화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전에는 서낭신은 15세에 과부로서 서낭신이 되었고, 각시광대도 단순히 탈놀이의 등장인물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그는 현재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 하회동 사람들이 아닌 하회동 외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단지 서낭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산대희적 놀이의 하나로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마을굿 단위의 탈놀이 중에서 하회의 것만이 전승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논구했다. 그는 하회에서는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고려 말에 들어와 나중에 양반층이 되는 류씨들도 마을의 전통 제의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하회 마을만의 특수성을 들어 하회에서는 거의 온전하게 탈놀이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관련된 또 다른 논문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영상민속지 기록화 작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밝힌 연구¹³⁹⁾가 있다. 이상현은 이 논문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 의뢰한 하회별신굿탈놀이 영상자료를 분석했는데, 탈놀이의 일부 과정이 생략되거나 관찰자의 입장으로 촬영 대상만을 촬영하여 연희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카메라 시선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가면극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가면극의 역사나 변천과정, 혹은 대사의 문학적 의미 등에만 집중되었던 것을 탈피해 영상민속지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 외에 가면극과 관련하여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변천 양상을 논구한 사진실의 연구,¹⁴⁰⁾ 조선시대 사행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지방관아에서의 공연양상을 고찰한 정영문의 연구,¹⁴¹⁾ 한국 가면극의 미얄할미와의 비교를

135) 한국공연문화학회, 『가면극의 종합적 고찰』, 박이정

136) 서연호,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東文選

137) 노성미, 「마산오광대의 연행 배경에 대하여」,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박진태, 「마산오광대의 대본 분석을 통해 본 연희성」,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화회; 강진우, 「하회탈춤의 신명 구현 원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심상교, 「야류·오광대의 관능적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138) 손태도, 「하회 서낭신의 정체와 하회탈놀이의 공연예술사적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139) 이상현, 「무형문화재의 영상민속지 기록화 작업의 특징과 문제점 -중요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영상민속지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140) 사진실,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완보/말뚝이의 변천 양상」,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화회

141) 정영문,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의 공연양상 고찰」,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통해 일본의 삼바소[三番叟] 가면의 형성과 배경을 논의한 남성호의 연구¹⁴²⁾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년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가면극 영역의 새로운 연구로 안대회의 논문¹⁴³⁾을 들 수 있다. 그는 정조와 순조 연간에 나례청과 나례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은 탈춤꾼이자 산대조성장인이었던 탁문환을 소개했는데, 한문학 전공자답게 문헌 자료의 고증을 통해 연희 제작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들을 최초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가면극에 비해 인형극은 전승되는 자료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연구 성과 또한 매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인형연행에서 인형배우는 인간배우가 쉽게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한다는데 착안해서, ‘신체 노출 표현’과 ‘신체 절단 표현’을 통해 인형연행 속 ‘낮선 표현’의 산출 기반과 통시적 방향을 논구한 허용호의 논문¹⁴⁴⁾을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문학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약간 빗겨나 있지만 경기도 안성시의 남사당 배우덕이 축제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덕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허구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한 정수진¹⁴⁵⁾의 연구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2.7. 속담·수수께끼

속담과 수수께끼는 구비문학의 여타 영역에 비해 매년 연구 성과가 가장 부족한 영역이다. 특히 수수께끼 영역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는 김경섭에 의해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다른 연구자에 의한 연구 성과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속담과 수수께끼는 단형 구비문학의 한 갈래이기에 앞서

언어 민속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근래에는 구비문학의 연구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속학의 영역에서 자료조사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그럼에도 2010년에는 속담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위 논문이 제출되어 시선을 끈다. 교육학 전공 논문들¹⁴⁶⁾이나 국어학 전공 논문들¹⁴⁷⁾을 차지하고 서라도 8편의 석사학위논문을 접할 수 있었다.

근래에 한국과 다른 나라의 속담을 비교 연구한 학위논문들이 심심찮게 제출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과 중국의 속담을 비교 연구한 학위논문이 4편¹⁴⁸⁾이나 제출되어 주목할 만하다. 비교 연구와 함께 또 다른 연구 경향은 한국어를 한국인¹⁴⁹⁾이나 외국인¹⁵⁰⁾에게 교육하기 위해 속담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다.

속담과 관련하여 비교연구이든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이든 외국유학생들의 학위논문은 앞으로도 많이 양산될 것이라 생각된다. 속담이 여타의 구비문학 장르들에 비해 현실에서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단형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연구거리로 다루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문들 간의 주제나 연구방법에 있어 차별성이 적고, 심지어는 표절에 가까운 논문들도 있어 논문의 양과는 별개로 그 질을

142) 남성호, 삼바소(三番叟)의 형성과 배경 연구 -미알할미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143) 안대회, 「18·19세기 탈춤꾼·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33-4(통권121), 한국학중앙연구원

144) 허용호, 인형연행 속 ‘낮선 표현’의 산출 기반과 그 통시적 향방,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145) 정수진, 축제의 문화정치학-배우덕이의 진정성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146) 유예림, 「韓·中 俗談에 나타난 동물 素材選擇 樣相 研究」,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주,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속담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 「속담을 활용한 국어적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47) 조영량, 「한·중 속담의 대비 및 교육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팽소방, 「한·중 음식속담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8) 동흠, 「한·중 동물 속담 비교 연구: ‘개’에 관한 속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국영, 「한·중 여성 관련 속담에 나타난 은유 양상 비교 연구 - 關於韓·中女性俗談 中體現出的隱喻樣相的比較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천,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빈도수가 높은 108개의 속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曹勇, 「韓國과 中國의 飲食 俗談의 比較 研究」, 『飲食 俗談 辭典』(1998)과 『俗談辭典』(2006)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다.

149) 이수정,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0) 전홍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한국어 속담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ema,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속담 교육 연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나, 「한국과 중국의 ‘닭[鷄]」에 관한 속담 비교 및 교육 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속담과 관련하여 일반 논문은 2편¹⁵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달영은 한국어의 언어 관련 속담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이 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했는데, 한국어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한국어 언어 관련 속담에는 문장 표현 구조가 유사한 것들이 많다는 등 도출된 결론이 당위적인 내용에 머무르고 있어 그 연구 의의는 크지 않아 보인다. 장재천의 논문 또한 한국청소년문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라서 그런지 효 속담의 사례와 해석을 통해 효 속담이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2010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에 대해 거칠게나마 점검을 해 보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동향 발표를 준비하면서 연구 성과들을 검색하고 분류하는 과정은 필자에게 지난하고 벅찬 작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작업을 통해 필자가 그 동안 세부 전공 공부에만 매몰되어 연구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0년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여전히 구비문학 분야는 현장론적 연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이야기판과 노래판, 굿판에서 더욱 그러한데 구비문학에서 연행현장은 자료수집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구비문학의 생동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비문학을 가장 구비문학답게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구비문학이 ‘문화콘텐츠’나 ‘스토리텔링’, ‘문학치료’, ‘축제’, ‘교

육’ 등과 만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면서 또 다른 변신을 도모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경향도 감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구비문학 자체가 지나치게 수단화되고 도구화 되어 본말이 전도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셋째로, 구비문학이 생태담론이나 다문화담론, 가족담론 등 현대의 중요한 담론들과 유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론 속으로 뛰어 들어가 함께 고민하면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는 모습들 또한 목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비문학이 근본적으로 구술문화, 즉 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의 부재는 대화의 부재를 낳고, 대화의 부재는 소통의 부재를 낳고, 소통의 부재는 공존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담론들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공존’의 문제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런 담론의 장에서 구비문학은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된다.

151) 정달영, 「한국어의 말(言語) 관련 속담에 나타난 언어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35, 한민족문화학회; 장재천, 「孝俗談의 教育的 考察」, 『韓國의 靑少年文化』 15, 한국청소년문화학회

참고문헌

1. 일반론

(단행본)

- 강성복 외,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0.
 경인민속학회, 『서울 민속의 현재와 미래』, 민속원, 2010.
 이영식, 『구비문학의 전승과 지역성』, 민속원, 2010.
 임재해, 『안동문화의 전통과 창조력』, 민속원, 2010.
 _____ 외, 『마을민속 연구의 새 지평』, 민속원, 2010.
 _____ 외,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2010.
 _____ 외, 『민속조사 주머니책-현장에서 요긴한 오만가지 질문』, 민속원, 2010.
 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지춘상, 『동아시아 민속학』, 민속원, 2010.
 표인주,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소논문)

- 조정현, 「안동지역 공민왕 관련 민속의 전승양상과 주민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최원오, 「한국 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1차년도 현장조사 분야의 성과와 전망」, 『민속연구』 20, 2010.

2. 설화

(단행본)

- 국립제주박물관 편, 『인류 문화의 판타지, 신화』, 서경문화사, 2010.
 김영진 저, 박삼중 감수, 『한국의 불교설화』, 삶과 벗, 2010.(이야기 모음집)
 노성환, 『여수시민에게 바치는 토끼 이야기 오동도 토끼설화의 세계성』, 민속원, 2010.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2010.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 엮음, 최인학 번안, 『1923년 조선설화집』, 민속원, 2010.
 이준근, 『韓國龍神創寺說話의 歷史民俗學的 研究』, 도서출판 문현, 2010.

- 허경진 외(4인), 『윤치호의 우순소리 연구』, 보고서, 2010.
 홍태한, 『한국구전설화집 17-민담편』, 민속원, 2010.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 박기현, 「구비 군왕설화의 의미전달 방식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繼母說話)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석사학위논문

- 강 철, 「濟州島 蛇神說話의 特性 研究 : 本土 蛇神說話와의 比較」,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강다현, 『태평한화골계전』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 연구 : -인물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구보라, 「<내 복(福)에 산다>형(型) 설화에 나타난 복관념」,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은정, 「자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홍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설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 : '춘향설화'와 '처용설화'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서은경, 『三國遺事』와 『日本靈異記』의 佛敎靈驗說話 比較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송지혜, 「한국어교육에서의 설화를 활용한 언어·문화 연계 수업방안 연구 : 중국인 초급 학습자 대상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송혜림, 「피쟁이 하인 설화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안수연, 「'오세암' 서사의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원영, 「변신설화의 원형적 의미구조와 그 현대적 변용 : 구령이 변신담에 담긴 수성·인성·신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원지, 「한국 설화의 연극적 변용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1970년대 이후 한국 희곡 대상 극작가별)
 이화영,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전주경, 「『삼국유사』소재 설화의 초월적 조력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현정, 『韓日 說話文學 속에 나타난 佛敎思想 比較研究 : 『三國遺事』와 『今昔物語集』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민경, 「금지설화의 연구 : <작제건·장자못·구렁덩딩신선비> 설화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유정, 「문화콘텐츠 소재로서 트릭스터 연구 : 설화, 영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여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진현, 「역사적 사실의 민속문화 형성과 민속의 사료 기능-상주시 청계마을의 견훤 설화와 신앙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소논문)
- 강봉근,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난 두꺼비 보은 설화의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문학회, 2010.
- 권태호,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김경섭, 「도깨비 설화에 나타난 ‘몸’의 의미 - 주체와 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 김경희,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_____, 「연성흙(延星欽)의 ‘동화구연방법의 이론과 실제」,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 김기욱, 「이야기관 활성화의 요인과 그 성격」,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 김기호, 「검암 설화에 나타난 형제 관계와 전승자 의식」,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김대숙, 「현대판 그림동화의 문학적 의의와 기능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2010.
- 김동윤,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수용과 변주에 관한 담화적 연구」, 『국어교육』 132, 한국어교육학회, 2010.
- 김상순,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10.
- 김순자, 「“선문대할망”과 그 별칭(別稱)」,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김영옥,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민담에서 ‘태양의 여성 상징’ 복원」,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김용기, 朱蒙, 溫祚, 洪吉童의 人物性格 研究 -출생담과 현실적 제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9, 우리문학회, 2010.
- 김종균,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 김진영, 「養馬모티프의 變遷과 文學的 意味」, 『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2010.
- 김현선, 「<밀의 기원>담의 Hainuwele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 _____, 「대만(臺灣) 포농족(布農族), 제주도(濟州島), 궁고도(宮古島)의 서사시(敍事詩)와 신화(神話) 비교(比較)」,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_____,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묘 -제주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그리고 환태평양의 신화 총체적 판도 조망」,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노제운, 「<오세암> 설화의 심층의미와 아동문화콘텐츠로의 변용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61, 민족어문학회, 2010.
- 박경수, 「구비설화의 현대시 수용 양상 연구 -서정주 시의 여성인물 설화 수용을 중심으로」,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2010.
- 박상란, 「비극적 태몽담과 죄의식의 문제 -구전설화 <태몽>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_____, 「출산경험의 서사화와 현대 태몽담 -뱀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_____, 「현대 태몽담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양상과 의미 -딸태몽담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박재인, 「설화 <죽은 처녀 겁탈하고 복 받은 머슴> 속 시간(屍姦)과 발복(發福)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010.
-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박현숙,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설화에 반영된 현실과 극복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_____,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며느리 고르기>와 <사위 고르기>설화의 비교」,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 변종현,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 연구」,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2010.
- 서은경, 「南怡 說話의 傳承樣相과 堂神化 過程」, 『어문연구』 66, 어문연구학회, 2010.
-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 선문대할망」, 『탐라문화』 37,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신동훈, 「사명당 설화에 담긴 역사인식 연구-역사인물 설화의 서사적 문법을 통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33-3(통권12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심우장, 「이야기 스키마와 구비설화의 전승과 변이」,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 여세주, 「우산국 ‘우해왕’ 전설의 스토리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 오세정, 「신화, 판타지, 팩션의 서사론과 가능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 _____,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우립길, 「동아삼국의 蚩尤전설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 이강엽, 「『삼국유사』 「興法」·「塔像」篇의 脫神話化 전략」,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2010.
- 이강욱, 「야담의 전개와 경화세족」,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 이기갑, 「구술발화의 전사와 분석」,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2010.
- 이동월, 「『월간야담』의 전대 여성관련담 개작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이성희, 「『단군신화』의 한국어 교재 수용 양상 고찰 및 수록 기준 모색 : 원전 수용방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3-4(통권1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_____,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 -넘어섬과 감싸 안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이순욱, 「근대 사명당 담론과 밀양 지역문학」,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학회, 2010.
- 이월영, 「『어우야담』 소개 인물담 연구 (1)」,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방향」,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 _____, 「설화전승자의 의식 변화와 ‘祭祀說話’의 미래 -<644-3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친 혼령> 설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2, 한국학언어학회, 2010.
- 이주영, 「『三國遺事』 所載 風俗 기원담의 인식 지향 비교」, 『어문논집』 62, 민족어문학회, 2010.
- 어문학회, 2010.
- 임재해, 「친딸과 양자로 형성된 가족관계 파탄과 지속의 주체」,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임철호, 「두만강신의 성격과 의미 연구 -조선족 두만강전설을 대상으로」, 『우리말글』 49, 우리말글학회, 2010.
- 정진희, 「제주도와 유구(琉球), 충승(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검토와 전망」,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정충권,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과 혈연 문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_____, 「여성의 시각에서 본 형제 우애 설화에 나타난 가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조현철, 「동아시아 신화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만주·한국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_____, 「이족(彝族) 신화 및 구비서사시 연구 -창세서사시 <므이꺼>와 추송 이족 호랑이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_____, 「The Significance of Perceptions of Baekdusan in Baekdu-related Myth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최 향, 「황구연전집 소개 한국 문헌설화의 재구의식」,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431-1)’ 유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최원오, 「동북아시아 신화의 전반적 특성 검토를 위한 방법론 모색」, 『북방문화연구』 1, 2010.
- _____, 「동북아신화에서의 ‘惡, 또는 부정적 존재들’에 대한 비교신화학적 이해 -부리아트 <게세르>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 _____, 「문학치료학 정립을 위한 방법론적 성찰」,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_____, 「이야기의 서승(書承)에 대한 근대적 관심과 기록정신」, 『동아시아고대학』 2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 허정주, 「정평구 설화의 세계와 문화적 의미」,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황인덕, <조카의 반심을 교화한 토정> 전설의 역사의식과 역사배경,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3. 민요

(단행본)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김동훈·허경진·허희훈, 『민요집』 연세국학총서73/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17, 보고사, 2010.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 민요1-부산편』, 민속원, 2010.

장익선, 『연변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 민속원, 2010.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류경자,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석사학위논문

권주림, 「충청남도 민요에 관한 연구 : 모심기 소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진찬, 「세마치장단 구조분석 :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0.

신지대, 「박춘재의 활동상과 재담소리의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혜원, 「강원도 토속민요의 시김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소논문)

강등학, 「<정자소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_____, 「한국민요학의 문제의식 추이와 경기도 민요연구의 과제」,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권오경,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김기현, 「<문경새재소리아리랑>의 아리랑사적 위상」,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김영진, 「<탄금대 방아타령>의 명칭과 변개양상」,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김인숙, 유성기음반을 통해 본 민요 <노랫가락>의 전승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김혜정, 「정선아리랑의 음악적 구조와 특성」,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나승만, 진월 전어잡이소리의 전승 맥락 고찰」,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마나베 마사히로[眞鎬昌弘], 강배 끄는 소리와 그 환경-일본·한국·중국-,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모형오, 「경상남도 전래동요의 음악적 분석」,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박관수, 어러리와 아리랑에 대한 문화적 분석」,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_____, 「제7차 개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민요교육의 문제점 연구」,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배인교,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논농사소리와 <산유화가>」,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서영숙, 「<그릇 갠 머느리 노래>의 전승양상과 향유의식」,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_____, 「<쌍가락지 노래>의 서사구조와 전승양상」,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2010.

손인애, 「경기 통속민요 <매화타령>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_____, 「공동 두레패 <소동패>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손태도, 「경기명창 박춘재 論」, 『한국음반학』 7, 한국음반학, 1997.

신은주, 「서해안지역 배치기소리의 토리 고찰」,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_____, 「전남지역 장원질소리의 유형별 분포와 음악 고찰」,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오용록, 충남 모심기소리를 통해 본 민요 선율의 동일성과 동질성」,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우승표, 「成人敍事 歌謠의 실태와 神話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 이동근, 「〈정선 아라리〉와 〈양반전〉의 문화콘텐츠적 융합」,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 이소영,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 -통속민요와 신미요, 그리고 창작민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 이옥희, 「열두달을 노래한 민요의 연행 맥락과 시간 의식」,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 장유정, 「1950년대 한국전쟁 관련 노래 읽기」, 『일본학연구』 3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 _____,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고찰」, 『대중음악』 6, 한국대중음악회, 2010.
- _____, 「20세기 전반기 <방아타령>계 노래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 _____, 「20세기 전반기 서양 대중음악의 수용과 양상 고찰 -재즈송을 중심으로」, 『우리춤연구』 13, 한양대학교 한양우리춤연구소, 2010.
- _____, 유성기 음반(SP) 수록 대중가요 아리랑 텍스트의 반복과 변주」, 『한국문학학예』 6, 송실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 _____, 「이 땅에서 ‘별’로 산다는 것은-대중가수의 탄생에서 귀환까지」, 『역사비평』 90, 역사문제연구소, 2010.
- _____, 이하운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특성 고찰」,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 _____,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 고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전계영, 「〈맹꽁이타령〉 노랫말의 의미」,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 정한기, 「영남지역 <나무꾼노래>에 나타난 신세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 조순현, 「충북민요의 자료 조사 현황과 활용방향 모색」,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 최자은, 「동물노래의 형상화 방법과 여성민요적 의의」,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 _____, 「영남지역 정자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설구성」, 『한국민요학』 30, 한국민요학회, 2010.
- _____, 「치병(治病) 관련 속신의식요(俗信儀式謠)의 치병 원리와 사설 구성과의 관계」, 『한국민요학』 28, 한국민요학회, 2010.

4. 무가

(단행본)

- 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강화의 가정신앙』 1·2, 민속원, 2010.
- 김종대 외,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민속원, 2010.
- 전통굿노들제연구단 엮음, 『전통굿 노들제 연구』, 민속원, 2010.

(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 강순탁, 「동해안 별신굿의 리듬형 연구 : 부정굿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일훈, 「충남지역 용왕제 연구 : 가정신앙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복순, 「제석거리 무복(巫服)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안광선, 「강릉단오제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연구」,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제호,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변별적 성격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윤정, 「상상적 이해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소논문)

- 강소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강진욱, 「「바리공주」의 불교제재 수용양상」,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 _____, 「〈김치(金緻)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 문제」,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 _____,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김치(金緻)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 _____, 「김치(金緻) 인물 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권선경, 「무당굿놀이에서 등장하는 맹인의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

- 학회, 2010.
- _____, 「서울 부근당굿에서 <황제풀이>의 의미」,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 권태호·김윤희,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김군태, 「한·일 마을제의(祭儀)의 축제적 성격 비교 고찰」,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2010.
- 김덕목, 「연극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황해도굿」,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김신호, 「굿놀이와 탈놀이의 공통성과 독자성」,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김은희, 「제주도 본풀이와 놀이의 상관성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_____, 「황해도 굿의 구조와 굿놀이의 위상에 관한 시론」,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김인희, 「중국 루오루오족 호랑이 축제의 신년제적 특징」,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2010.
- 김태우, 「일제시대 서울 서빙고 지역과 부근당 중수집단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김현선, 「굿의 생태론적 의의 연구-황해도 대동굿의 『별대감굿』을 예증으로 삼아」,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 김형근, 「남해안 오귀새남굿의 비교 연구-동해안 오구굿, 전라남도 셋김굿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남해안지역 굿놀이의 양상과 비교」,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남근우, 「복원주의 민속학의 아이러니-‘강릉단오제’의 곤경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 남성호, 「가구라(神樂)의 신들림과 표상적 장치」,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박일영, 「무당의 소명(召命) 체험이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대응태도 비교연구」,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박종익, 「예산군 대술지역 동계 연구」,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 백선희, 「한국 샤머니즘(巫)과 민속춤의 치유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서대석, 「<일월노리푸념>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성정희, 「<문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010.
- 손태도, 「굿놀이와 재담소리」,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_____,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_____,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 -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안상경, 「계룡산 삼신당굿 무경의 구조와 의미」, 『우리말글』 50, 우리말글학회, 2010.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서울굿 <호구거리>의 성격 변화」,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윤동환, 「별신굿의 역사적 전개와 축제성」,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2010.
- 이경엽, 「호남지역 무당굿놀이의 연행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이영배, 「미디어융합 시대와 굿문화 - 굿문화의 존속과 의미에 관한 성찰」, 『우리말글』 48, 우리말글학회, 2010.
- 이주영, 「<호살량>과 <호탈>의 주술과 연행주체의 세계관 비교」,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代命型 서사무가들의 이본 간 관계 및 구조 결정 요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임재해,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 _____, 「한국 축제 전통의 지속 양상과 축제성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42, 비교

- 민속학회, 2010.
- 장정태,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2,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조정현, 「공동체신앙 사제자의 범주와 유형」, 『비교민속학』 42, 비교민속학회, 2010.
- _____, 「마을공동체신앙과 생태민속 -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 _____, 「별신굿의 대항제의적 성격과 축제적 연행구조」,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한양명, 「전통축제와 축제적 연행의 구성과 진행 방식에 관한 시론 -해월(解越)과 포월(匏越)의 미학적 가능성 탐색」,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 한양하,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 허용호, 「'굿놀이'의 역사 기술을 위한 토론」,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현승환, 「공무도하가 배경설화와 무혼굿」,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 홍태한, 「강신무 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 『남도민속연구』 21, 남도민속학회, 2010.
- _____, 「강화도 가정신앙 대감의 성격 연구」, 『도서문화』 36, 도서문화연구소, 2010.
- _____, 「강화도 교동도 가정신앙 전승의 다양성」, 『도서문화』 35, 도서문화연구소, 2010.
- _____, 「고양시 도내동도당굿 현장 보고」,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무당굿의 축제 가능성과 방향 모색」, 『공연문화연구』 20, 한국공연문화학회, 2010.
- _____, 「무신도를 중심으로 한 부군당의 연원 모색」, 『한국민속학』 51, 한국민속학회, 2010.
- _____, 「미풍양속에 내재된 욕망의 의미 고찰-무속신앙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 _____, 「서울 진오귀굿의 재차 구성과 의미」,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0.
- _____, 「서울굿 뒷전의 맹인거리 사설」,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_____, 「친정에서 따라온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남도민속연구』 20, 남도민속

학회, 2010.

5. 판소리

(단행본)

- 유영대, 『동편제 명창 송만갑의 예술세계』, 민속원, 2010.
- 정충권 역, 『홍보전·홍보가·옹고집전』(한국고전문학전집 008), 문학동네, 2010.
- 최동현,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 민속원, 2010.
- 판소리학회, 『판소리 명창론』, 박이정, 2010.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 「19세기말~20세기 판소리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류호열, 「<숙영낭자전> 서사 연구 : 설화·소설·판소리·서사민요의 장르적 변모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석사학위논문

- 강승의, 「한승호 명창의 판소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도영,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대목」 연구 : 성우향의 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소라, 「<적벽가> 군사타령 중 「고당상 대목」 비교 분석 : 박봉술, 임방울, 정권진 소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윤희, 「조선 후기 여성 자의식의 형상화 양상 : 판소리 所載 反烈女の 인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손준형, 「아동극에서 우리 옛이야기의 구술적 가치와 양식적 수용 방안 : 아동극 「저승의 용사 강림도령」 창작에서 「판소리 양식」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0.
- 송소라, 「여성극극의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현실대응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우지용, 「판소리 너름새와 口技, 優戯의 관련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화정, 「한국 판소리 명창 제도화 내부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 전주 대사습 명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현영, 「방자형 인물과 말뚝이형 인물의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2010.
- 최지현, 「판소리 <중타령> 연구 : 박록주와 김소희의 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소논문)
- 강미정, 「홍보가에 나타난 관계 지속의 문제와 그 문학치료적 효용」,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권순근, 「홍부전의 현대적 수용」,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김동건, 「어린이 창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김상훈, 「폴리돌판 <적벽가>를 통해 본 관우 위엄 대목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의 교감과 번역상의 문제」, 『어문학』 107, 한국어문학회, 2010.
- _____,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0.
- _____, 「심청가 결말부의 지평전환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김옥란, 「판소리 <赤壁歌>와 경극 <赤壁鏖兵>의 서사 구조비교」,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 김정은, 「'옹녀'의 상부살풀이 과정으로 본 <변강쇠가>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2010.
- 김진영, 「<춘향전>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의 다양화 방안 모색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2010.
- 김현주, 「판소리의 사유체계와 동양미학적 기반」,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박희순, 「진양조 장단의 구현양상」,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배연형, 「홍보가(성학회 본) 소리책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성기련,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손영은, 「신재효 본 <적벽가> 사설에 나타난 나열 표현 양상과 그 의미」,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010.
- 송미경, 「동래정씨(東萊鄭氏) 문중(門中) 내 판소리 문화 향유의 일양상」,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신동훈, 「창작 판소리의 길과 <바리테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유선미,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유영대, 「판소리 전통과 최명희의 혼불」,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이철, 「연극 <은세계>의 존재 양식과 성격」,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이동희, 「'부모화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의」,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이문성, 「신재효 사설에 나타난 성적 어휘와 성묘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_____, 「인물 작명과 골생원의 형상으로 본 <강릉매화타령>」,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이유진, 「판소리 시조 수용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이정원, 「<화용도>에 나타난 '몸'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 임향란, 「조선영화 『춘향전』과 한국 특집드라마 『향단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완관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학회, 2010.
- 전영주, 「판소리 유행대목의 가요화 양상과 그 의미 -<쑥대머리>, <추월만정>, <군사설움타령>의 시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 정원지, 「한중(韓中) 전통(傳統) 소리 예술(藝術) 판소리와 곤곡청창(崑曲淸唱)의 전통(傳統) 계승(繼承) 발전전망(發展展望)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研究) -전주(全州) 판소리 대사습(大私習)과 중국(中國) 소주(蘇州) 호구(虎丘) 곡회(曲會)를 중심(中心)으로-」,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정충권, 「<홍부전>의 아이러니와 웃음」,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조도현, 「대중문화 코드로 본 <춘향전>의 현대적 변이 -드라마 <쾌걸 춘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채수정, 「학교 교육 안에서의 판소리 교육 현황과 실태」,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최광석, 「<토끼전>에서 '육지위기'와 '토끼포획'의 공존과 그 의의」, 『판소리연구』 29, 판소리학회, 2010.
- 최진형, 「시조와 판소리의 관련 양상」,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6. 민속극

(단행본)

서연호,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東文選, 2010.
한국공연문화학회, 『가면극의 종합적 고찰』, 박이정, 2010.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김상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구조와 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박사학위논문, 2010.

□ 석사학위논문

김주연, 「북청사자놀음에 내재된 표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소논문)

강진우, 「하회탈춤의 신명 구현 원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남성호, 「삼바소(三番叟)의 형성과 배경 연구-미얄할미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노성미, 「마산오광대의 연행 배경에 대하여」,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2010.
박진태, 「마산오광대의 대본 분석을 통해 본 연희성」,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사진실,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완보/말뚝이의 변천 양상」,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손태도, 「하회 서낭신의 정체와 하회탈놀이의 공연예술사적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심상교, 「야류·오광대의 관능적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안대희, 「18·19세기 탈춤꾼·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33-4 (통권1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상현, 「무형문화재의 영상민속지 기록화 작업의 특징과 문제점 -중요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영상민속지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
정수진, 「축제의 문화정치학 -바우덕이의 진정성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정영문,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의 공연양상 고찰」,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최윤영, 「수미산(須彌山) 조설의 특성 및 존재양상」,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허용호, 「인형연행 속 ‘낮선 표현’의 산출 기반과 그 통시적 향방」,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7. 속담 및 수수께끼

(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동 흠, 「한·중 동물 속담 비교 연구 : ‘개’에 관한 속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지현, 「속담을 활용한 국어적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왕국영, 「한·중 여성 관련 속담에 나타난 은유 양상 비교 연구 = 關於韓·中女性俗談中體現出的隱喻樣相的比較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우 나, 「한국과 중국의 ‘닭[鷄]에 관한 속담 비교 및 교육 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유예림, 「韓·中 俗談에 나타난 동물 素材選擇 樣相 研究」,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중국어교육 전공)
이연주,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속담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 천,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 빈도수가 높은 108개의 속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전홍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 한국어 속담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정혜진,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속담 연구 : 한·영 속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영량, 「한·중 속담의 대비 및 교육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국어학 전공)
曹 勇, 「韓國과 中國의 飲食 俗談의 比較 研究 : 飲食 俗談 辭典(1998)과 『俗談辭典』(2006)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주수정,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팽소방, 「한·중 음식속담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Hema,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속담 교육 연구 :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국문과 한국어문화교육학전공)

(소논문)

장재천, 「孝俗談의 教育的 考察」, 『韓國의 靑少年文化』 15,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0.

정달영, 「한국어의 말(言語) 관련 속담에 나타난 언어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35, 한민족문화학회, 2010.